

“ 한국 교회 안에 매관매직이 있다니? ”

■ 이종윤 원로목사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키거나 특정한 직책을 맡기는 것을 매관매직이라 한다.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한 이 같은 악한 습성이 거룩한 교회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은 전직이 마술사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용이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공허한 피상적 신앙을 가진 자였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또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흥미로 교회에 출입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신자들은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궤도수정을 하지 않으면 한낱 미아로 끝나고 말 우려가 없지 않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의 예수를 전하는 신앙보다 썩 잡는 놈이 매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목회의 성공이요 교인수가 많을수록 훌륭한 교회로 평가 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로제도를 갖지 않은 어느 교파에 속한 교회에 당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장로를 명예직으로 백여 명이 넘게 세우고 있는가 하면, 어느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도 받지 않은 전직 장관과 대기업 회장을 교회 출석을 한 첫 주에 장로로 추대한다고 선포를 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교회에서 연출되었다. 장로 직분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중요한 직분임으로 상당한 신앙 경력과 식견을 가진 자를 교인들의 투표와 훈련을 거쳐 노회 고시 후 안수 받아야 함에도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여 매관매직한다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되는 일이 많지만 그런 것만으로 아니 되는 일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처럼 돈으로 성령도 사서 권능을 행하겠다는 배금주의 사상에 젖은 이들이 남보다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진 이들에게 명예라는 이름으로 성직을 남발한다.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가 베드로성당 건축을 위해 성직 매매를 하듯이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명예집사, 명예권사 심지어 명예장로 또는 호칭 장로까지 세우고 있으니 종교개혁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은과 함께 망하리라는 책망을 받았다. 지당한 책망이다. 그러나 무서운 책망이다. 그렇다면 시몬은 마땅히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자기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만 했다. 그것은 남의 기도를 빌어서 재앙만 모면하려는 무속신앙의 단면을 노출한 것이다.

사람들 중에 재앙이나 심판, 지옥이나 저주를 무서워하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다. 심판이나 지옥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직분을 인간을 위한 직분으로 둔갑시킨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재앙과 심판만 피하려는 것은 무속신앙에 젖어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개종은 했다지만 무속신앙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결국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 선악개오사(善惡皆吾師)라는 말이 있다. 선과 악이 모두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엔 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 안에도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본받고 따를 만한 빌립의 후예도 많지만 절대로 본받아서는 아니 될 시몬의 후예도 적지 않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95개 조 항의문 가운데 ‘교회의 결정도 잘못될 수 있다’ 는 구절은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듣고 개혁의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우리 교회는 영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한다. 성령을 거저의 영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예수를 바로 모르는 이가 바른 신앙이 생길 수 없다.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해서 는 안 될 짓이나 하다가 남겨서는 안 될 것을 남겨놓은 시몬의 후예가 되지 말고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바른 신앙 안에 살다가 주님이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바른 교회를 후인에게 남기도록 하자.

-한국장로신문 [제1346호] 2012년 12월 8일 발행-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Mrs.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5:6-8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Rev. Euichang Kim
* Hymn	210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사이사), 이은준(김해경, 영재성(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 아사, 비스파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 카르), 김용진(황경애(말라위), 김영호(사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필리핀, 프르산트, 수레시, 수바식, 이경연, 일로롱, 비사누(뽀뽀, 보디소프, 린롱, 수란준(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철(근교)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먼저 구해야 할 것 ”

■ 마 6:33
 영역에 대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것은 사소하다’ 라는 두 가지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상에는 영려할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먼저, 혹은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 대하여 영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마 6:25-26)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면 본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영려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영려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려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행함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고, 구원과 축복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가 하면 그의 의(his righteousness)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라고 마태는 말씀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영생을 주시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완성,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우리들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 다른 종교는 시간이 들고 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뚜렷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끝이 다가오는 이 때 기독교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여야 하겠습니까?

3. 종말의 때에 가져야 할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베드로의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야말로 ‘먼저’ 에 관련한 단연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를 평생직으로 여겼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주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를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까지 우선순위가 확고하지 않았거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베드로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맺는 말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종종 광야 길로 가게 하십니다. 광야 길을 걷다보면 잘못 되었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광야 길을 통과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하나님께 헌신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였지만,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고, 가치 기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하였던 모든 문제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들이 내 영혼에 자리 잡게 됩니다.
 종말의 때를 직시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므로 헌신과 순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광건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22:27-28...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육 Responsive Reading13(시 23)...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36(36)...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롬 7:18-25...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인간은 백조인가, 흑조인가?”... 김철홍 목사
- * 찬 송 Hymn274(332)...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조범연 선교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마 28:19-20 인 도 자
- 찬 송 183(172) 다 함 께
- 기 도 안성현 집사
- 성 경 ... 행 1:8, 2:17; 롬 14:17 ...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성령이 오시면..." ... 설 교 자
- * 찬 송 185(179)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 기 도 박진희 권사
- 성 경 막 5:1-20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대단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 권사회 월례회 / 26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
- 모세 선교회 월례회 / 26일(주) 오후 3시30분 104호
- 2019년 흥해작전 참모회의 / 26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알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두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식이 6월 16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6월 2일(주)까지 문답총정리는 6월 9일(주) 오후 1시에 (105호실) 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6월 9일(주일) 오후 2시(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계현(안과), 김동준(내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5. 오늘 주일예배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철홍 목사(장신대 신약신학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59명	223명	195명	1,277명	127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5/1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 19일	헌 금	22,884,000	
	특별예배비		1,118,000
	교회학교운영비		1,852,500
	선 교 비		1,769,000
	구 제 비		40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500,000
	복리후생비		122,500
	통 신 비		703,220
	수도광열비		89,680
	차량유지비		760,692
	소모품비		109,240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604,200
	식당운영비		998,390
	합 계	22,884,000	9,349,222